

# 죽음을 담보한 탈북,

〈보건세계〉 원고 부탁을 받고 하나원에서 간호사로 12년 넘게 근무하면서 만났던 북한이탈주민들 중 간호했던 한 결핵환자와의 인연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K에 관한 얘기를 기억 속에서 꺼내보려 합니다. 이 글은 북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핵 진단을 받고도 약을 구할 수 없어 치료를 방치하다 결핵균이 뇌막염을 일으켜 하반신 마비라는 영원한 장애를 갖게 된 이야기입니다. 영화 같이 멀기만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사는 탈북민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그리고 결핵



K를 처음 본 것은 2004년 겨울이었다. K는 국내 입국 후 이미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서 치료를 받아오다 하나원 입소가 결정되어 구급차에 실려 안성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왔다. 24세인 환자의 상태는 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비위관과 소변 줄이 삽입되어 있었으며, 기운이 없고 무기력했다. 이마에 깊게 패인 흉터, 초췌한 얼굴에는 의학적 건강상태를 판단하지 않아도, 그녀가 겪어왔을 수많은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결핵성 뇌수막염인 환자는 하반신 마비에 비위관을 통한 투약과 음식물 공급이 필요한 중환자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태여서 신경과 의사가 주치의로 결정되었다. K를 안성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킨 후 사무실로 돌아와서 동반 입소를 한 가족(남편과 1살인 딸)을 만났다. 남편에게 부인의 병 증상과 앞으로의 치료 진행을 설명하였고 병원 방문 시 면회가 가능함을 알려주자, 그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탈북 과정의 힘든 여정을 풀어놓았다.

K는 26세의 남편과 북한에서 1년 전부터 교제했고, 임신을 하면서 2004년 4월 23일 혼인을 했다. 그녀는 임신 7개월 때 북한의 신의주 결핵병원서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살 돈이 없어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열흘간 부항치료만 했을 뿐,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한다.

9월에 K가 딸을 출산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먼저 한국에 정착한 어머니가 연결한 안내인에게 한국행을 제의받았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며칠 동안 고심하다 자신의 병도 치료하고 아기도 키워야 하는데, 이대로 굶어죽을 수 없다며 한국으로 가자고 해 탈북을 하였다고 한다. 출산 후 20일쯤 되던 날, 가족 모두는 추운 밤에 두만강을 건넜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중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중국에 도착한 후 K는 의식을 잃어 중국 옌지(延吉) 시 결핵예방소에 입원을 했고, 병원에서는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과 함께 하반신 마비증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녀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며 체념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중환자 발생 사실을 한국영사관에 알려 칭다오(靑島) 영사관으로 신병이 인계되어 한국에 빨리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남편은 한국으로 오면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부인의 병이 점차 심각해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고, 꼭 부인을 완치시키고 싶다며 절절히 도움을 청해 왔다.

K의 남편과 면담을 끝내고, 아기 양육 문제는 한국에 사는 외할머니에게 부탁을 드리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기는 자신이 키울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 대신 교육생 중 마음이 따뜻해 보이는 아주머니에게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고, 흔쾌히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육아 문제를 해결하였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K의 증상이 호전되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자, 일반 병실 치료를 권유하여 그녀의 간병을 남편에게 요청하였고 그는 병원에서 간병을 했다. 그런데 환자의 병 치료가 순조롭게 되면서 차츰 가족간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2주 정도 지나면서 남편은 K에게 자주 화를 냈다. 아내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내 때문에 자신이 배울 기회를 놓쳐 다른 사람보다 손해를 많이 본다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 간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병실의 다른 환자 보호자와 잡담을 나누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태도에 병실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로부터 충고를 듣기도 했다.

가끔 병원 방문을 하면 K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매우 지저분하고 냄새가 풍겨 그녀에게 이유를 물으면, 남편이 전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가 곁에 있는 게 더 괴롭다고 호소했다. 또한 어머니는 자신이 돈을 보내 한국에 오게 된 사위가 환자인 딸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착금과 주택 모두를 사위에게 줄 수 없으니 이혼을 시키겠다고 사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고, 다인병실에 있으면서 가족 문제로 싸움을 하여 사람들에게 자주 눈총을 사곤 했다.

K를 위해 남편을 하나원으로 귀원시키고 대신 유급 간병인을 배치하고 법적 문제는 하나원 퇴소 후 개인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그녀를 안심시켰다. 유급 간병인으로 바뀌면서 환자의 모습은 나날이 좋아져 얼굴에 생기가 돌고 여유가 있어 보였다.

그녀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현실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면서 북한에서 1년 여를 함께 살아온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자 가족 관계부를 만들 때 따로 호적 신청을 하였다. 자신의 모든 일은 어머니에게 상의하는 한편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하여 허락을 받고, 정착금 분할과 아기의 양육을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가족 문제를 중재하면서 어느 한 곳으로 마음이 쏠리지 않고 전달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탈북민 정서상 피해 의식이 도사리고 있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K의 건강 회복이 가장 중요하므로 환자 중심으로 대화를 하였다. 병원 입원 중에 결핵약 복용 지도와 하반신 마비증상이 더 진행되지 않게 물리치료를 하면서 보호자 교육을 병행토록 병원에 요청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천신만고 끝에 만난 딸이 결핵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하반신 마비까지 온 현실적인 딱막함을 토로하는 하소연을 들어주고,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

기와 격려를 주라고 부탁했다. K의 어머니는 탈북 과정의 어려움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화장품 판매원, 식당일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였다. 딸을 북한에 두고 온 게 마음에 항상 죄책감으로 남아, 겨우 모은 돈으로 데려왔지만 장애우가 된 딸이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울면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였다.

3개월의 하나원 교육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K도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까지 병이 호전되었고,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하는 상태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다. 어머니가 사는 충주로 보내면서 자세히 약 복용과 물리치료, 소변줄 관리 등을 알려주었다.

K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전화 연락이 되도록 연락처를 적어주면서 그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가족 문제까지 깊이 개입하여 중재를 하였기에 나중 중간에 두고 남편과 친정어머니, 환자는 그들의 마음속 갈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남편은 장모가 자신들의 정착금을 가로채려 한다면서 미워했고, 친정어머니는 사위가 딸을 학대하고 돌보지 않을까 겁이 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였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 되지만 자식과 부모는 남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모양이다. 결국 K는 엄마를 따라갔다.

퇴원 후 소변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응급으로 안성의료원을 방문하기도 하였지만, 엄마 집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남편과의 법적 문제(정착금 분할)는 어머니의 푹 부러진 해결로 원만하게 처리되었다고 하였다.

한 번은 결핵약이 떨어졌는데 병원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며 약을 타서 보내 줄 수 없느냐는 전화가 왔다. 안성의료원에 접수를 하여 결핵약 1개월분을 등기로 보내면서 환자에게 간단하게 편지를 썼다.

하나원에서 만난 K와의 인연을 요약해 적으면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에서 나올 때, 태어난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탈북을 하였는지요? OO 씨는 용기 있고 강단 있는 엄마랍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잘 생활하길 바라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답니다.....’

편지를 받고 딸이 많이 울었다면서 K의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화를 받았다.†